

# ‘드루킹 관련 의혹’ 노회찬, 아파트 투신



드루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한 23일 오전 사고현장에서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8분께 서울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원내대표가 아파트 현관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 17층~18층 계단 참에 노 원내대표의 외부와, 외부 속 지갑 및 신분증, 정의당 명함, 유서 등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 오전 9시30분께 투신...경비원이 최초 발견 유서 “청탁과는 관련 없다...가족에게 미안”

없다는 내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자인 경비원은 “분리수 거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펍 소리가 나서 보니 사람이 떨어져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노 의원의 모친과 동생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의 자택이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있다보니 국회 일정 등이 많은 노 의원이 이 집에도 머물렀다는 점이다. 현장에는 검안기가 도착하지 않아 아직 시신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보존조치 등을 해놓고 주변 탐문을 지속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씨 측으로부터 500만원대 불법 정치자

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허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투신 소식을 접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굉장히 침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허 특검은 “노 의원은 이 나라 정 책 사에 큰 획을 그었고 이 나라 의정활동에 큰 장식을 하신 분”이라며 “오늘(노 의원의 투신자살) 보고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평소엔 정치인으로 존경해오던 분이셨는데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먼거리에서 늘 그분의 흔적을 바라봤다”며 “노 의원의 명복을 깊이 빌고 유가족에게 개인적으로도 깊고 깊은 유가의 말을 드린다”고 전했다.

여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격돌

## 與 “정치적 성향, 문제 안돼” 野 “편향성 분명...사퇴하라”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점과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박성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개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진 과제였고 앞장서서 추진했다”며 “간접적·직접적 정치활동 외에도 전교조, 민노총과 함께한 활동이 간접적으로 다 연결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자에 편향된 시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성별, 출신학교, 지역 등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질이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다양성에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성은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다양성이지만, 다양성 때문에 한쪽으로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판결에 영향을 주고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검찰의 재벌 개혁 대상 포획된 국회의원은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자의 가치관이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대법관이어서 적절하지 의심이 든다”며 “국민 인권을 보호를 판단하는 대법관이 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다

고 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공론분열이 있는 좌우대립,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마다 성향을 내고 재판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이 정치적 견해, 성향을 갖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면(정치적 이념) 문제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법관도 진보나 보수나 여러 성향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다. 어떤 사안이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판결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자가 아파트 다우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관련해 야당의 공격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한 당시 다우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

바 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관행에 따랐다는 답변이 기가 막힌다”며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양심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날을 세웠다 또 ‘한양아파트를 차분하고 매입한 단독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지원 평화와 정의 의원도 “다우계약서가 관행이라고 말하면서 대국민 사과가 대단히 인색하게 말한다”며 비판했다.

## 노회찬 사망 소식에 ‘충격’ 휩싸인 정의당...“드릴 말씀 없다”



“사실 관계 확인 중” 당측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정의당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노 원내대표 사망 소식 직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동균 부대변인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 당 지도부 역시 노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최대한 말을 아낀 채 상당 파악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의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상무위원회를 열었으나, 노 원내대표는 불연 불참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뉴스스

## 박지원, 노회찬 사망소식에 “너무 가슴 아파...패닉상태”

국회 법사위서 오래 활동...최근 공동 교섭단체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다”며 애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노동전문 변호사 김선수 대법관 후보의 인사 청문회 중 노동자를 위해 정치활동

을 한 노 의원의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노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도록 활동한 사이다. 최근에는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소속으로 활동했다. 박 의원은 “노 원내대표의 인격상 무너져 내린 명예와 삶 책임에

대해서 인내하기 어려움을 선택했겠지만 저 자신도 패닉상태”라며 “솔직히 청문회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노 원내대표는 민주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9시38분께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표는 유서에서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등의 입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